

한미 FTA 10~14일 2차 본협상 쟁점과 전략

할인점 '맑음' 백화점 '흐림'

하반기 유통업계 기상도

'국민적 합의' 카드 마련 피해 줄여야

미국, 농산물·자동차·금융 총 공세  
쌀 양허대상 예외품목으로 관철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 닷새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우리와 미국의 협상전략, 주요 쟁점,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한다.

■한미 FTA 2차 협상의 주요 쟁점

Table with 3 columns: 분야, 한국 입장, 미국 입장. Rows include: 쌀 등 주요 농산물 개방, 농산물 세이프티(긴급수입제한조치), 섬유세이프 가이드, 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자본 확대, 한국의 자동차 세제, 전문직 비자쿼터, 긴급 상황에서 투자 회수 제한하는 세이프티, 법률시장 개방, 정부 조달건설·물품발주개방.

방침이다.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과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협상 최대한 늦춰야

전문가 제언-전문가들은 결코 협상을 미국측의 일정에 맞춰 서두르지 말고, 내부적으로 FTA 반대세력에 보다 구체적인 이익과 피해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농산물 총력방어=시장이 개방될 경우 충격이 큰 농산물 민감품목은 최대한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쌀의 경우 농림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내에서 아예 양허대상 예외품목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개방 후 사후관리장치와 관련, 정부는 향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특정 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탄력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해야 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등 수입쿼터를 관리하기 위해 국영무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세계 충돌

자동차-정보통신=미국의 자동차 생산체제가 배기량이 큰 대형차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2차 본협상에서 우리의 자동차 세계에 협

상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해온 우리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가격이나 연비기준으로 바꾸면 세급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동차 세제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측에 현행 평균 2.5%인 미국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20%대의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픽업트럭의 관세 폐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부여, 통신사업 외국인자본 제한, 인터넷프로토콜(IPTV) 서비스규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통신망 간 상호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전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술표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개방도 핫 이슈=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실정에 맞는 단계적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자세다. 곧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해 진출하는 상업적 주체는 가능한 허용하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신규금융서비스는 제한적 수준에서 개방한다는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수요의 50% 밀돌아

중기청 351곳 조사

중소제조업체들이 최근 3년간(2003~2005년) 추진한 설비투자 실적의 수요의 50%를 밀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설비투자가 부진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351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비투자 부진원인 및 고려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설비투자 수요대비 투자실적은 50% 미만은 61.8%였으며, 설비투자의 목적은 '신제품의 생산개시 및 확대'(46.0%)가 가장 많았다.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부진 44.5%, 자금조달의 어려움 29.3%, 생산인력 조달곤란 7.5% 순이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중국·아세안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 해외생산 및 투자확대를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올해 설비투자 전망은 지난해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68.9%를 차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소기업체들은 설비투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금사정(36.2%),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24.6%), 경기요인(23.8%)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40.8%), 기술개발 지원(15.4%), 수출지원(11.4%), 판로지원(10.5%)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인숙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은 "자금사정 개선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스윙플더폰 출시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300만화소대 카메라 폰인 300만화소 스윙플더폰(모델명 : SCH-A990)을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을 통해 출시했다.

삼성전자 '300만 화소' 카메라폰 첫 선  
미국 고화소 카메라폰 시장 선점 나서

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300만 화소대 카메라폰을 선보이며 고화소 카메라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300만화소 스윙플더폰(모델명 : SCH-A990)'을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미국시장에 나온 최고화소 제품은 삼성전자가 작년 5월 처음으로 선보인 카메라폰 SCH-A800 등으로 200만 화소 급이다.

미국 휴대용 시장은 10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폰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올

해부터 고화소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작년 북미 카메라폰 시장에서 4.5%에 불과했던 1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카메라폰 비중이 올해는 28.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출  
100억달러 넘어서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출이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35% 증가했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플랜트 수출액은 10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 늘어났다. 산자부는 고유가로 산유국들과 메이저 정유 업체들의 플랜트 발주물량이 많아져 해외 플랜트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수출실적은 해양 49억달러, 석유화학 20억달러, 산업설비 15억달러, 육상유전 13억달러, 발전·담수 10억달러 등이다. 해양(56%), 석유화학(22%), 산업설비(723%) 등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폭 증가했지만 육상유전(-27%)과 발전·담수(-11%) 분야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 수출실적은 유럽 37억달러, 중동 31억달러, 미주 17억달러, 아프리카 14억달러, 아시아 9억달러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해외 플랜트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3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개보다 늘었고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도 5억4천만달러(68건)로 지난해 상반기 1억3천만달러(30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main sections: '로또복권 (제188회)' and '팝콘복권 (제11호)'. Each section contains a table of lottery results with columns for numbers and prize amounts.

올 하반기 유통업계 기상도는 할인점·슈퍼마켓·인터넷쇼핑몰은 '맑음'이지만 백화점·편의점·TV홈쇼핑은 '구름'으로 나타났다.

9일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할인점 매출액은 13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3%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백화점은 9조3천억원으로 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슈퍼마켓은 10%, 인터넷쇼핑몰은 13% 성장하지만 편의점은 7% 성장하는 데그쳐 TV홈쇼핑은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국제유가 고공행진, 금리인상 정책기조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유통업계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는 할인점 매출액이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1조4천억원보다 10% 확대됐고 백화점은 9조원으로 8% 늘어나는 한편 특히 명품(21.1%), 남성복(13.5%)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슈퍼마켓은 8%, 편의점은 10%, 인터넷쇼핑몰은 14%, TV홈쇼핑은 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 할인점 시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캐르투, 월마트 인수·합병(M&A) 결과로 구도가 1강 2중으로 재편되는 한편 신규출점이 25개로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업계에서는 고객관계 관리(CRM) 강화와 PL(Private Label) 개발 확대, 금융업과 컨버전스 확대 등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업계는 소비 양극화에 따른 매스티지 브랜드, 독자 브랜드 유치경쟁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으며 롯데백화점의 청주백화점 인수에 이어 M&A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시중은행 영업점포 4,380개  
외환위기 이후 최다

시중은행들의 영업점포 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점포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으로, 은행들의 무리한 외형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올 3월말 현재 4천380개로 나타났다.

국내 점포 수는 시중은행들이 작년말 영업을 확대하면서 2005년 9월말 4천255개에서 같은해 12월말 4천336개로 늘어났는데 이어 올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9월말 이후 6개월만에 점포 수가 125개나 급증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영업점 개설이 올 2·4분기에도 많았음을 감안하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점포 수는 4천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대우·동남·동화·보람·서울·신한·외환·제일·조흥·주력·광화·하나·한미·한빛은행 등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합병된 은행들이 활동하던 1997년의 4천680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1개 은행이 간판 바꾸거나 인수·합병대상이 되는 수모를 당하고 인력 및 점포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살아 남은 은행들이 영토 확장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에 시중은행 수가 현재의 2배인 15개였음을 감안하면 대형화된 은행들의 영업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 3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일반직원 수도 5만9천967명으로 2004년 12월의 6만37명 이후 15개월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일반직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급감했다가 2004년말 국민은행이 2천여명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 2005년 3월말에는 5만7천889명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들이 외형 확대전략으로 돌아서면서 구조조정보다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현금결제비율 증가

중소제조업체의 판매대금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에 1천500개사를 대상으로 2·4분기 판매대금 결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금결제 비율은 62.5%로 전반기에 비해 1.1%포인트,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현금결제 비율은 2004년 1분기(56.3%)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올 1·4분기(61.4%)에는 주춤했으나 2·4분기 들어 다시 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전반기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58.1%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80.5%), 의복 및 모피제품(76.0%), 음식료품(74.1%)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높았지만 대기업과의 납품거래가 많은 자동차부품업종의 현금결제 비율이 50.8%에 불과했다.

한편 어음 판매대금의 회수기일은 평균 119.6일로 전반기에 비해 1.6일, 작년동기에 대해서는 4.3일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이 늘고 어음 회수기일이 짧아지는 등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Contact Info, etc. Includes jobs like '유티넷', '오스템', '광기공 본사', etc.

광주광역시 동구 송정 4-12길 10(일대리역)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